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8
----------	-------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김주영 · 송갑석 · 이용빈
최인호 · 정일영 · 이개호
윤재갑 · 김승원 · 조정식
임호선 · 김희재 · 강민정
이수진^(비) · 이용우 · 장철민
박상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

정 화에 기여하고함(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illegible]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2026
년 12월 31일-----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